

#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에 관한 의식연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원 민 정

경북농업기술원 생활기술과

## 1. 서 론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으며 그중 한 분야를 차지한 농업 또한 이러한 경쟁 속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유전공학을 이용한 농업 생산력의 획기적 증가, 신 자유 무역주의의 대두, 직접 지불 중심의 농정 개혁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다양한 과제를 남겼으며 세계 농업과 농정은 이러한 과제와 함께 21세기를 열어 가고 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의 국제적인 변화 양상은 우리나라 농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1994년부터 2003년 기간 중 농산물 실질 가격이 연평균 1.7%씩 하락하였고 실질 농업 소득도 연평균 3.4%씩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도 농가 소득은 도시 가구 소득의 8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되어 2010년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의 70.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농촌 인구는 급격하게 노령화·여성화되었고 WTO, FTA, DDA 등의 시장 개방, IMF 이후의 경기 후퇴 등의 영향으로 농촌은 더욱 피폐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내·외적인 변화 속에서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농촌의 사회 문화적 공익 기능을 포함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여 국제 협상과 국내 정책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에 대하여 주로 연구되었으며 농촌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범주의 공익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전통지식의 보존 발굴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점차 전통문화가 자원으로 재평가 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이 농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파악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가. 조사방법

본 연구는 농촌거주자 220명(경북지역 시군당 10명, 울릉제외) 도시거주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거주자는 전통문화 자원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며 전통문화 자원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직물의 천연염색 시범사업, 전통규방공예 사업, 전통생활문화 전승보급 사업, 향토음식맥 잇기, 전통 테마 마을 육성 사업으로 한정하여 하였고 도시거주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2004년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 나. 조사내용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이 농촌에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 조사를 위해 경제분야는 이 정책이 사회 직·간접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분야는 도농교류·이질감조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분야는 여가문화·전통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특성(연령, 학력, 농촌거주 경험)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0.0 한글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첫째 전통문화자원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전통문화에 대한 개념인지와 욕구를 분석한 결과 전통문화를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조명 한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5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이제까지의 전통문화 정책과는 상이한 점을 보인다. 전통문화 자원에 대한 욕구 조사를 위해 관심분야와 체험분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농촌의 주관심분야는 식생활분야와 춤·음악분야였고 도시는 산·바다·섬등 자연경관과 식생활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해 본 경험은 농촌은 세시풍속, 재래시장으로 나타났고 도시는 종교유적과 유적지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제까지 체험분야와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거주자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은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응답이 50.7%, 사업시작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수입」이 30.6%, 사업의 주체는 「농촌 주민 스스로」라고 한 응답자가 59.0%,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의 발굴 및 계승」이 47.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재 사업 수행에 있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소득을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전통문화의 발굴

및 계승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도시거주자들은 농촌이 전통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느끼며 (63.9%)며 96.5%가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이 농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것」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셋째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의 수행에 있어 애로 사항은 「지역민의 인식부족」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극복 방법으로는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32.8%가 응답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 보고로서의 농촌의 재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44.0%가 대답하고 있다.

넷째 전통문화자원화 정책이 농촌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농촌에서는 「정부투자가 증가 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65%로 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일자리증가」 53.7%, 「농촌가계소득증가」 43.3%, 「지역소득증가」 65%, 「농촌에서의 소비증가」 64.1%, 「사회간접자본투자 증가」 66.4%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시는 「지역소득이 증가할것」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80.2%로 나타나 「일자리증가」 62.8%, 「농촌가계 소득증가」 51.2%, 「정부투자 증가」 71.6%, 「농촌에서의 소비증가」 77.9%, 「사회간접자본 투자」 68.6%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변화 의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농촌거주자는 학력에 있어 「지역소득이 증가 할 것」 「농촌에서의 소비가 증가할 것」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증가 할 것」에 대한 항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소득이 증가 할 것」 「농촌에서의 소비가 증가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간접 자본 투자 증가 할 것」에 대해서는 초등중(100%), 고졸(89.1%)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연령에 있어서는 「지역소득이 증가 할 것」에 대한 항목에서 유의하였는데 31~40세의 연령대가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82.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득에 있어서는 「지역소득증가」 「농촌에서의 소비증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역소득증가」 항목은 소득이 501~1000만원이하의 응답자가 73.3%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농촌에서의 소비증가 할 것」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긍정적이며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은 소득이 가장 높은 3001~4000만원의 소득자가 83.4%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 도시거주자는 연령에 있어 「일자리가 증가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0~30세이하 연령층이 66.7%, 31~40세이하는 71%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농촌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는 농촌과 도시가 모두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농촌의 경우 「도시민과의 교류가 활발해 질것」

76.1%, 「많은 유동인구로 소란스러워 질 것」 50.8%, 「교통혼잡」 50%, 「지역이 활기차질것」 72.4%, 「이웃간 불협화음이 생길 것」 40.3%, 「주거환경이 좋아질것」 69.4%, 「농촌정착의지가 높아질 것」 50%의 비율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의 부정적인 분야에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는 「도시민과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 71%, 「많은 유동인구로 소란스러워 질 것」 68.6%, 「교통혼잡」 64%, 「지역이 활기차질것」 79%, 「이웃간 불협화음이 생길것」 51.2%, 「주거환경이 좋아질것」 79.1%, 「농촌정착의지가 높아질것」 39.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시는 농촌이 도시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지역이 활기차 질 것으로 보지만 그로 인해 농촌이 소란스러워지고 교통이 혼잡스러워지거나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것에 농촌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 특성과 농촌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 농촌은 학력에 있어 「지역사회가 활기차 질 것」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학력이 가장 낮은 초등졸 100%, 학력이 가장 높은 대졸 이상이 77.7%로 나타나 양극화 현상을 보였고 연령에 있어서는 「도시민과 교류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20~30대의 연령층에서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있어서 「이웃간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라는 항목에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는 학력에 따라 「도시민과 교류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중졸자 100%, 대졸이상자 77.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농촌거주 경험이 있을 수록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농촌의 문화적 변화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농촌은 「지역문화 행사가 늘어날 것」 82.8%, 「여가 문화 발전할 것」 71.6%, 「옛것에 대한 인식이 바뀔것」 82.9%, 「지역 전통문화 개발」 82.1%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나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것」 32.1%, 「지역자연이 보호 될 것」 36.6%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반면 도시는 「지역문화 행사가 늘어날 것」 88.3%, 「여가문화 발전할 것」 66.3%, 「옛것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 82.6%, 「지역전통문화 개발」 81.4%로 나타났으나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것」 23.2%, 「지역 자연이 보호 될 것」 26.7%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의 특성에 따른 교차 분석 결과 농촌은 학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자연이 보호 될 것」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가 문화가 발전할 것」에 대해서는 대졸자가 33.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 그 외의 조사자는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옛것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는 항목에서는 초등졸자가 50%로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존

경심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으나 초 등졸자는 100%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여가 문화 발전할 것」이라는 항목에 있어 소득이 500~2000만원 사이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옛것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는 항목은 501~1000만원 사이의 소득자가 60%로 다른 소득층보다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도시거주자는 연령에 있어 「지역의 전통문화가 개발 될 것」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것」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의 전통문화가 개발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것」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연령층이 부정적이었으나 특히 가장 연령이 높은 60세 이상에서 0%로 나타났다.

#### 4. 결 론

21세기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와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부 국한된 부분이 아닌 사회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적합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현실에 가장 알맞은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주체가 되는 정책 또한 무수히 많은 정보 속에서 이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토록 디자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농촌은 60~70년대의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에 이어 자유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농산물 수입 완전개방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농촌의 주요 기능이 농산물 생산이었다면 앞으로의 농촌은 전통문화의 산실로서의 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 할게 될 것이며 농촌을 대상으로 한 정책 또한 이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은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농촌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 정책이 농촌이나 도시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농촌에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에 있어서는 보존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현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문화로 보고 있으며 과연 어떠한 분야를 더욱 개

발하느냐는 농촌과 도시에 있어 관심분야를 조사한 결과 식생활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에 농촌거주자들은 상당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업 결정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50.7%나 되었고 사업의 주체 또한 농촌주민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9%를 나타낸 것으로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처음 사업을 시작 할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나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대해서도 40.7%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도시거주자들은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이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 수행에 있어 애로 사항은 「지역민의 인식부족」이라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에 따른 극복 방법으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농촌 사회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전에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정부 기관에서나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통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이 농촌에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식 조사에 있어 경제적으로는 농촌과 도시 모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농촌의 경우 개인적 가계소득보다는 지역소득이 증가할것이라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자의 특성과의 교차분석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의식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31~40세이하 즉 가계지출이 가장 큰 연령층에서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이 정책의 시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연령에 있어 가장 일자리가 필요한 20~30대에서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는 농촌보다 도시가 오히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많은 유동인구로 농촌이 소란스러워지거나 교통이 혼잡해지고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것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농촌 사회를 볼 수 없으나 도시는 좀더 객관적 입장에서 농촌사회를 의식한다고 보았을 때 농촌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해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농촌 사회의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에 어긋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책 시행의 중간 단계마다 농촌의 사회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책의 수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본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차 분석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농초과 도시 공통적

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우 농촌거주경험이 있는 조사자가 농촌거주경험이 없는 이보다 이 부분에 있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의 농촌의 변화에 있어서는 지역문화 행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역의 전통문화가 개발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전통문화와 노인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것」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농촌은 32.1%, 도시는 23.2%만이 긍정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이 보호 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농촌은 23.2%, 도시 26.7%로 나타나 이 부분에 있어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조사자 중 농촌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문화적 변화에 대하여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며 도시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농촌의 변화에 대한 의식중 긍정적인 부분은 앞으로의 정책 수행에 있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우려되는 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수행에 있어 피이드 백 작용을 통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이 농촌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조사 연구가 전통문화 자원화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그로 인한 농촌 사회의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경상북도 내에서 천연염색사업, 전통규방공예사업, 전통생활문화 전승보급사업, 향토음식맥잇기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에 종사하는 농촌거주자와 도시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 경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농촌 사회 변화에 대한 조사 분석 시 문항들이 그 분야에 대표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비하였으므로 이를 더욱 뒷받침 해줄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